

5월 27일 양양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파라미타 10주년 기념식서 10년간 강원파라미타를 물심양면 지원하며 이끌어 온 금곡 정념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2017년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할 강원파라미타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재불사 10년, 청소년불자 산실로 거듭나다

강원파라미타, 5월 27일 창립 10주년 기념식

2005년 낙산사 화재 창립 계기
"불교 중요성 청소년에 알리자"
불교·전통문화 체험활동 전개
신행활동도 함께, 지역포교 새 장

"강원 파라미타 파이팅! 한국불교 파이팅!"

5월 27일 양양군 실내체육관은 청소년 불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 강원파라미타 10주년을 맞은 이날 기념식에 모인 600여 청소년 불자들은 파이팅을 외치며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 것을 다짐했다.

사실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금곡 정념)의 탄생에는 불교계의 아픔이 서려 있다. 2005년 양양 낙산사 화재가 발생한 후 2007년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강원지역 불자들은 힘을 모아 강원파라미타 청소년협회를 창립했다. 진정한 의미의 불사를 하자는 뜻에서였다.

낙산사 화재가 전통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인재였다는 점에서 불교와 한국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그 밑바탕에 있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행사인 만큼 이날 자리에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원지역 33개 중·고등학생 6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단순히 강원파라미타의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로만 열린 것이 아니었다. 2017문화재지킴이 발대식과 다양한 문화공연, 감사패 전달 등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에는 제1회 명상대회가 열려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명상 방법이 소개되기도 했다.

발대식에서 회장 금곡 정념 스님은 "낙산사 화재 이후 우리는 복원이란 꿈을 꾸었고, 다시금 낙산사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동참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모인 불자청년들도 함께 꿈을 꾸길 바란다. 함께 모이면 꿈을 이룰 수 있고, 더 좋은 일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파라미타 상임이사 성진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 금곡 스님이 파라미타를 이끌어 주셨다. 화재 이후 복원을 위해 심은 나무는 덜 자란 것 같은데, 10년이 지난 뒤 꼬마였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청소년이 됐다"며 "오늘 청소년들을 보니 10년간 인재불사가 그 어떤 불사보다 뜻깊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0주년을 맞은 만큼 그동안 파라미타 활동을 지도해 온 교사들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청소년들에게 공로상과 장학금도 전달됐다.

강원파라미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어기근 속초고 교사와 사무차장 전인혜 강릉자비노인복지센터 팀장, 이수오 강일여고 교장이 공로상을 받았다.

강원도동계캠프 UCC 경연에서 전통문화 지키기 주제로 출품, 1위로 선정돼 이날 우수학생상을 수여받은 김남혁 학생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여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파라미타 활동도 겸하면서 한국전통과 불교문화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 후에는 명상체험, 문화골든벨, 한마음 운동회 등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교리와 문화재 상식 등이 출제된 문화골든벨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양양=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강원파라미타가 걸어온 길

강원파라미타는 낙산사 주지로 있던 금곡 정념 스님이 2005년부터 낙산사 인근 초중고등학교 6곳과 파라미타에 장학금과 활동비 등 매년 2억여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각 학교에 불교학생회가 생겨나며 창립 준비가 활발히 이뤄졌다. 2007년 12월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13번째 지역조직으로 강원파라미타는 13개 분회 130여 회원으로 출범했다. 정념 스님은 매월 300만원 씩 후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 같은 노력 끝에 분회와 회원 수는 점점 늘어났다.

학생과 교사들의 파라미타 활동이 늘자 2010년 2월 강원도교육청은 파라미타 지도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 제도를 인정했고, 2010년 3월 낙산유스호스텔에서의 제1기 교원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시작으로 직무연수도 실시됐다.

2010년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도입
2012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발족
53개 분회 **2100여 회원 조직 발전**



2007년 강원파라미타 출범식



2012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발대식.

여기에 강원파라미타는 2009년 6월부터 매년 지역 초중고생 5~70명을 선정해 4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문화체험행사도 열기 시작했다. 또 2012년부터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을 발족하고 강원지역 문화유적지를 보호하고 있다.

2017년 현재 53개 분회, 지도교사 60여명, 회원 2100명으로 지역 내 최대 청소년협회로 발돋움한 강원파라미타는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2016년 2년 연속 전국파라미타 회장 배출한데 이어 2016년 제8회 나란다 축제서는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우리 문화유산 '불교' 청소년들이 지킬 것"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금곡 정념 스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불교와 전통문화가 1000년 5000년 만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청소년 포교에도 관심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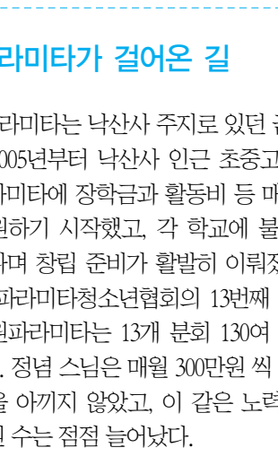
강원파라미타가 10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심양면 파라미타 활동을 지원해 온 금곡 정념 스님〈사진〉의 후원이 있었다. 그렇기에 스님은 10주년을 맞이한 이날 감회가 새로워 보였다.

금곡 정념 스님은 강원파라미타협회 회장을 지내며 10년간 양양지역 청소년 포교에 매진해왔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교사불자연합회를 비롯한 유관단체 구성에도 힘써왔다.

정념 스님은 "강원파라미타는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통해 강원도 지역 문화재를 바로 알고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동참은 향후 우리 민족문화유산이 계승 보전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스님은 이어 "10년 뒤에도 청소년들이 문화재를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원효 탄생 1400주년,
원효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

-원효사상의 새로운 성찰, 인도 및 중국 불교와의 만남

한국 불교의 바깥에서 바라본 원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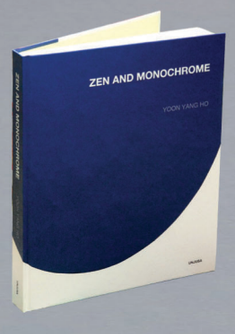
주로 한국불교의 맥락에서 연구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도 및 중국불교의 주요한 사상들과 원효사상을 비교 연구하여, 원효 이해의 지평과 원효사상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권오민, 이병욱, 김도공, 김성철, 배경아
신국판/무선/336쪽/15,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선禪과 현대미술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예술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작가 〈윤양호의 33회 개인전〉

작품집
ZEN AND MONOCHROME
(선과 단색화) 출간 기념 전시



서양에서의 현대미술은 선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선禪적 지향이 뚜렷하다. 한국의 윤양호는 그 접점에 서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아우르면서 그만의 독창성이 어우러진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B3판/양장/244쪽/50,000원/운주사

윤양호: 독일 국립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선조형예술학과 교수이다.

기간 : 2017.05.10-15
장소 : 인사아트센터 | 본전시장(1F)
Tel (02) 736-1020

